김소월 시집 3

차례

1. 將別里[장별리]
2. 님의 말슴
3. 두사람
4. 하늘씃
5. 눈
6. 훗길
7.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섭대 일쌍이 잇섯더면
8. 山有花[산유화]
9. 고만두 풀노래를 가져 月灘[월탄]에게 드립니다.
10. 長干行[장간행]
11. 보냄
12. 쑴싄그넷날

한국저작권위원회
KOREA COPYRIGHT COMMISSION

1. 將別里[장별리]

軟粉紅[연분홍]저고리, 쐲안불부튼
平壤[평양]에도 이름놉흔將別里[장별리],
金[금]실銀[은]실의 가는비는
비스틈이도 내리네 쌰리네.

털털한 배암紋徽[문휘]돗은洋傘[양산]에
나리는 가는비는
우에나 아레나 나리네, 쌰리네.

흐르는大同江[대동강], 한복판에
울며 돌든 벌새의쎄무리,
당신과離別[이별]하든 한복판에
비는 쉴틈도업시 나리네, 쌰리네.

-《開闢[개벽]》25호[1922.7]p.149

2. 님의 말슴

세월이 물과가치 흐른두달은
길어둔독엣물도 씨엇지마는
가면서 함께가쟈하든말슴은
살아서 살을맛는표젹이외다

봄풀은 봄이되면 도다나지만
나무는밋그루를썩근셈이요
새라면 두쥭지가 傷[상]한셈이라
내 몸에 솟퓔날은 다시업구나

밤마다 닭소래라 날이첫時[시]면
당신의 넉마지로 나가볼째요
그믐에 지는달이 山[산]에걸니면
당신의길신가리 차릴째외다

세월은 물과가치 흘너가지만
가면서 함께가쟈 하든말슴은
당신을 아주닛든 말슴이지만
죽기前[전] 쏘못니즐 말슴이외다

-≪진달내쏫≫ pp.16～17

3. 두 사람

흰 눈은 한닙
또 한닙
嶺[령]기슭을 덥 플 때.
집신에 감발하고 길심매고
웃둑 니러나면서 도라서도 ……
다시금 또 보이는,
다시금 또 보이는.

-《진달내옷》 p.33

4. 하늘씃

불연듯
집을나서 山[산]을치다라
바다를 내다보는 나의 身勢[신세]여!
배는써나 하눌로 씃틀가누나!

-《진달내쏫》 p.45

5. 눈

새하얀 흰눈, 가븨얍게 밟을눈
재갓타서 날닐듯써질듯한눈
바람엔 흐터저도 불씰이야 녹을눈
계집의마음, 님의마음.

—《文明[문명]》 1호 [1925.12]

6. 훗 길

어버이님네들이 외오는말이
『쌀과아들을 기르기는
훗길을보자는 心誠[심성]이로라.』
그러하다, 分明[분명]히 그네들도
두어버이틈에서 생겻서라.
그러나 그무엇이냐, 우리사람!
손드러 가르치든 먼훗날에
그네들이 또다시 자라커서
한길갓치 외오는말이
『훗길을두고가쟈는 心誠[심성]으로
아들쌀을 늙도록 기르노라.』

—《진달내옷》

7.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섭대 일쌍이잇섯더면

나는 쑴꾸엿노라, 동무들과내가 가즈란히
벌싸의하로일을 다맛추고
夕陽[석양]에 마을로 도라오는쑴을,
즐거히, 쑴가운데.

그러나 집일흔 내몸이어,
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보섭대일쌍이 잇섯
드면 !
이처럼 써도르랴, 아츰에점을손에
새라새롭은歎息[탄식]을 어드면서.

東[동]이랴, 南北[남북]이랴,
내몸은 써가나니, 볼지어다,
希望[희망]의반짝임은, 별빗치아득임은.
물결뿐 써올나라, 기슴에 팔다리에.

그러나 엇지면 황송한이心情[심정]을! 날로 나날이 내
압페는
자츳가느른길이 니어가라. 나는 나아가리라
한거름, 또한거름. 보이는山[산]비탈엔

온새벽 동무들 저저혼자……山耕[산경]을 김매이는.

—《진달내옷》pp.145~146

8. 山有花[산유화]

山[산]에는 ᄭᅩᆺ픠네
ᄭᅩᆺ치픠네
갈 봄 녀름업시
ᄭᅩᆺ치픠네

山[산]에
山[산]에
픠는ᄭᅩᆺ츤
저만치 혼자서 픠여잇네

山[산]에서우는 적은새요
ᄭᅩᆺ치죠와
山[산]에서
사노라네

山[산]에는 ᄭᅩᆺ지네
ᄭᅩᆺ치지네
갈 봄 녀름업시
ᄭᅩᆺ치지네

-《진달내ᄭᅩᆺ》 pp.202~203

9. 고만두 풀노래를 가져 月灘[월탄]에게 드립니다.

1
즌퍼리의 물까에
우거진 고만두
고만두를 꺾으며
「고만두라」 합니다.

두손길 맞잡고
우두커니 앉았소.
잔즈르는 愁心歌[수심가]
「고만두라」 합니다.

슬그머니 일면서
「고만갑소」 하여도
앉은대로 앉아서
「고만두고 맙시다」고.

고만두 풀숲에
풀버러지 날을 때
둘이 잡고 번갈아
「고만두고 맙시다.」

2

「어찌 하노 하다니」
중어리는 혼잣말
나도 몰라 왔어라
입버릇이 된줄을.

쉬일때나 있으랴
生時[생시]엔들 꿈엔들
어찌하노 하다니
뒤재이는 생각을.

하지마는「어찌노」
중어리는 혼잣말
바라나니 人間[인간]에
봄이 오는 어느날.

돋히어나 주과저
마른 나무 새 엄을
두들겨나 주과저
소리 잊은 내 북을.

-《假面[가면]》6호 [1926.7]*111

10. 長干行[장간행]

또

「집이 九江[구강]싸이라
오매 오르내리우
서로 長干이면서
은체 물낫구료!」

家臨九江水來去九江側同是長干人生少不相識[가임구강수래거구강측동시장간인생소불상식] －崔顥[최호]－

－《三千里[삼천리]》53호[1934.8] p.177

11. 보냄

쓸쓸하다 멧골집
자네 보내고 가고난니싸
외로워라 싸리문
져문날에 후리네.

봄철 풀은 해마다
다시 풀으건마는
가이업다 우리는
가고 어이고 못오나.

-〈유고 [동아일보]〉 P.20

12. 씀쒼그넷날

흰눈은 窓[창]아래에 싸혀라, 달밝은 밤
저녁어스럼 밟고서 그女子[여자]는 왓서라,
그리 그립던데 억하여 맛대이며 우러라.
그는 첫말이, 나도 첫말이,
아, 씀아닌가!
흰눈 싸혀라, 고요히 窓[창]아래 달밝은 밤
젹은 발 흔들니는 그림자, 눈물 어려저
새이는 새벽은 눈앞에 그女子[여자]는 갓서라,
뷘가지 더듬는 바람소래, 지새이는 달,
다시금 흰눈 나라라. 씀이요, 인재요.
-19. night-

-〈유고 [수첩]〉 p.20